

11명 기획자 협업으로 다양한 ‘경계들’ 조망



14일 광주비엔날레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18 광주비엔날레 다수 큐레이터 발표 기자회견'에서 총괄 큐레이터로 참여하는 김선정(맨 오른쪽) 비엔날레 대표이사들 비롯해 7개 전시를 기획할 클라라 김(왼쪽에서 다섯번째) 테이트모던 큐레이터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8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11명 확정...전시컨셉 기자회견



광주비엔날레

2018년 광주비엔날레(2018년 9월 7일~11월 11일) 참여하는 11명의 큐레이터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7개의 전시를 기획, 인류 역사와 사회적 정치적 환경 등의 경계에 있는 동시대 아젠다를 다채롭게 펼쳐낸다. 또 1995년 첫 비엔날레의 전시 주제였던 '경계를 넘어'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20여년의 시간 흐름 속에서 변화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시 장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확정됐으며 '오월 광주'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등 광주 지역 곳곳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14일 광주비엔날레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단한 전시 컨셉을 설명한 큐레이터들은 15일까지 광주에서 워크숍을 통해 각자의 기획안을 발전시키고 공간 리서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무대 활약 아시아 큐레이터 눈길

올해 새롭게 도입된 다수 큐레이터제의 장점은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해 보여주는 다채로운 전시다. 참여자들은 큰 주제 아래 각자 독립적인 컨셉을 잡아 현대미술의 역동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큐레이터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 학자 등으로 그동안 지구촌의 역사와 정치적 현상, 이주, 난민 등의 경계 지점에 대한 전시 기획과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중국에 이어 동남아권 현대미술이 부상하는 흐름을 반영해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국제무대 활약 20여명 다수

1~3명씩 팀 이뤄 전시 꾸려

비엔날레 아카이브·북한전 눈길

클라라 김은 현재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큐레이터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의 제3세계권 전시 기획을 담당해왔으며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인 크리스틴 Y. 김도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제임스 터렐 전시를 비롯해 굵직한 전시를 선보였다. 또 북한미술 권위자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미술을 연구해 온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이자 작가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태국 현대미술과 실험영화의 대표작가인 아펏차퐁 위라세타콘 개인전을 기획한 그리티야 가위영 집톰슨 아트센터 예술감독은 소수민족과 이주 문제에 대해 전작해왔으며 리타 곤잘레스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제3세계권의 역사와 현상에 대해 꾸준히 탐구해온 기획자다.

한편 이태광 경희대학교 영미문화전공 교수가 광주비엔날레 월례회의 프로그램인 GB토크를 통해 다양한 인문학적 장을 펼칠 계획이다.

김선정 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총괄 큐레이터를 맡아 큐레이터들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대표이사는 "다수큐레이터 제도는 다양한 전시 주제를 구현하는 시발점이자 플랫폼"이라며 "각 큐레이터들이 최상의 상황에서 프로덕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된 경계들' 주제로 다양한 7개 전시 기획 선정된 큐레이터들은 1~3명씩 팀을 이뤄 전시를 꾸리게 된다. 특히 올해 전시 주제 '상상된 경계

들'은 1992년 1회 행사였던 '경계를 넘어서'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 눈길을 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주의에 대한 저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서 차용된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세계화 이후 민족적·지정학적 경계가 재편되고 있는 동시대 현상을 다룬다.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정치, 경제, 심리, 감정, 세대 간의 경계와 경계 없음, 경계안, 경계 사이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계획이다.

클라라 김은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을 통해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기획되었던 도시계획 프로젝트, 수도, 정부청사, 공영주택 개발로 구현됐던 유토피아의 꿈과 좌절을 돌아본다. 크리스틴 Y.김과 리타 곤잘레스는 조각,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포스트인터넷 시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변화와 부작용을 환기시킨다. 그리티야 가위영은 국가주의, 탈영토화를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들과 함께 아카이브, 구술기록 및 문화자료를 연구, 국경과 이주가 갖는 의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정연심과 이완 쿤의 전시는 인종, 계급, 프라이버시 등 시사적 이슈에 대해 탐구하며 데이비드 데 국립상가포르대 부교수는 20년 역사의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한 전시를 기획중이다.

김만석, 김성우, 백종욱 3명의 큐레이터는 한국작가 전시를 진행한다. 최근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강동호·문선희 박상화·박세희·박화연·오용석·윤세영·이정록·정유승·최기창 등 광주 작가 10명을 포함한 총 35여 작가가 참여한다.

그밖에 북한의 대형 집체화를 포함한 40점 이상의 조선화를 선보이는 문범강의 전시는 기존에 선보인 북한 미술전에서 더 나아가 북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도로 눈길을 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시대 창극 '당신의 의미' 공연

17일·18일 남도소리올림터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오는 17일 오후 7시, 18일 오후 5시 무안 남악에 위치한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정기공연으로 시대 창극 '당신의 의미'를 선보인다.

지난해 다문화가정의 애환을 그린 정기공연 '흐영의 희망일기'에 이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황혼이혼과 치매 등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대의 아픔을 주제로 그려낸 작품이다.

주인공 김혜자는 시내버스 안내장으로 일하던 시절 운전기사였던 고만석을 만나 결혼해 맨손으로 버스회사를 일궈냈다. 김씨는 평생을 힘들게 일한 대가로 골병든 몸과 가족 사이에서 곁도는

소외감,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그려냈다.

작곡은 유장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연출은 판페라 '이순신' 등 다수 작품을 연출한 이재성(가천대 교수) 연출가가, 대본은 신춘문에 당선작 '카오스의 거울', '목포는 항구다' 등을 집필한 정경진 작가가 안무는 서영 송원대 교수가 맡았다.

유장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부부와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분들의 행복과 진정한 자유, 그리고 따뜻한 감명을 받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관람료는 일반 1만원, 단체 7000원(20명 이상). 061-285-692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시대 창극 '당신의 의미'를 연습중인 전남도립국악단의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ACC 동행 프로젝트’ 내일 예술극장 로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2017 ACC 동행 프로젝트'를 16일 오후 7시에 ACC 예술극장 로비에서 개최한다.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지자체, 문화예술인, 청년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예술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지역 청년 셰프의 특선 요리와 NS JAZZ BAND, IDEE, (사)시안발레단의 갈라 공연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기업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기업 상생의 유형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현대카드의 '1913 송정역시장, 지키기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기업과 지역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



김동규

유성녀

를 제시한다. ACC는 지역예술인 및 청년기획자와 협력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컬처노믹스' 현상에 대해 발표한다.

바리튼 김동규와 소프라노 유성녀가 만드는 축하 공연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문의 062-601-407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출판문화진흥원 이기성 원장 사의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이기성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4일 "이기성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후임자 인선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2월 25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임기 3년)에 임명됐다. 그

러나 사의를 표명한 이면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태 개입 의혹 등이 구설수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이에 출판문화진흥회는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사의 표명, 진흥원 정상화의 시발점'으로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하고 "출판진흥원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 · 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